

제주사회복지신문

제48호

2011년 10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고경윤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화북1동 1112-1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전화 : 064702-3783 ~ 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가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은 사회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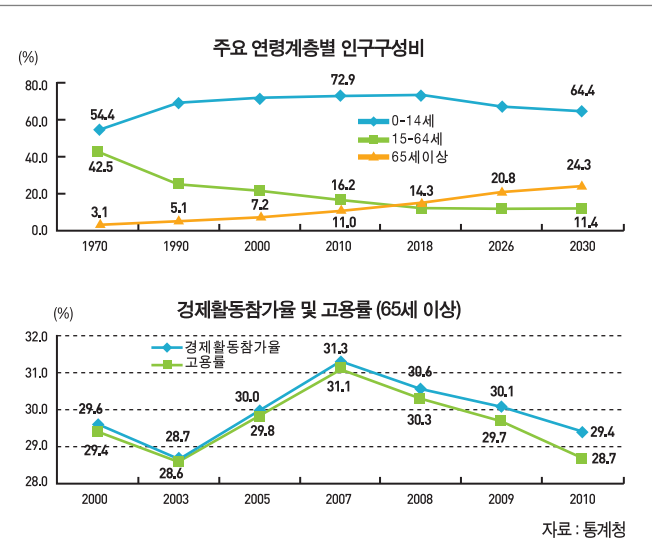
통계청이 9월 29일 발표한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이후 8년 뒤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10명중 2명이 노인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돼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년에 불과하다.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2년이 걸렸으며, 2009년에 초고령사회가 된 독일은 37년이 소요됐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사회적약자공직임대 입주잔다
시설 탐방-아가의집
- 사회복지소식 4~5면
제주여성 기아체험 열린캠프
해정원 근로장애인 전국 1위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2011 사회복지세미나

고령사회에서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경제활동 29.4%...61% '노후준비 못했다'



2018년과 203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랑스와 미국은 39년과 21년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 비중은 17.4%로 2000년 11.9%, 2005년 15.2%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5명이 1명, 2030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0~14세)에 대한 노인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는 67.7로 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68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100.7이 되면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4%로, 전년도 30.1%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그렇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아이슬란드(36.2%)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일본은 21.8%, 미국은 17.4%, 스웨덴은 12.1%였다.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노후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61%는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4%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답했고,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이라는 응답자도 39.5%로 조사됐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39%의 노후준비 방법에는 국민연금(29.6%)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28%), 기타 공적연금·사적연금(22.9%)이 뒤를 이었다.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로는 '가족이 돌봐야 한다'와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이 각각 38.3%, 37.8%로 비슷했다. 18.4%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과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의 비중은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 시간 사용실태(2009년 조사)를 보면 하루 평균 1시간 39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남자 고령자는 2시간 14분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12~55분)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여가와 교제에 할애한 시간은 6시간 46분으로 미국(8시간 19분), 영국(8시간 47분), 네덜란드(7시간 17분) 등에 비해 적었다.

한편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전체의 7% 이상일 때, 고령사회는 14%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로 분류된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웹페어뉴스에

제주사회복지협의회-웹페어뉴스 사회복지홍보 활성화 업무협약

"제주사회복지신문, 웹페어 뉴스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국내 최초 사회복지 인터넷 신문인 '웹페어뉴스(www.welfarenews.net)'와 9월 7일 사회복지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발행하는 홍보매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소식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사회복지신문 내용을 웹페어뉴스에서도 볼 수 있으며, 제주지역 사회복지현장의 소식과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실제 웹페어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9월 7일 제주하생문화원에서 열린 제1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를 생중계했다.

또 시의성 있는 웹페어뉴스의 기사를 제주사회복지신문에도 소개하기로 했다.

이 외에 캠페인과 종사자교육 등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

WorldDesign

Advertising, Brochure, Catalogue, Poster, Package Design, etc...
good editors _ good designers for you

월드디자인 광고 | 브로슈어 | 카달로그 | 포스터 | 패키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016-18번지 1F Tel 064-755-4580~1 Fax 064-755-4582 Cell 010-9458-1455



사회적 약자 공직입문 길 확대

중증장애인·탈북자·저소득층 별도 채용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 취약 계층인 중증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주민들이 성별, 학력, 연령 등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해 왔지만 숨은 인재 발굴과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공헌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별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중증장애인제한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는 9월 15일 실시했다.

중증장애인제한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전산·사서·사회복지 3개 직렬을 각각 1명씩 채용한다. 일반직 9급 채용기준

에 부합하는 자격 중소지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장애정도, 업무능력 등을 감안해 부서에 배치되며, 중증장애인임을 감안해 업무분장 등에 있어 공직적응에 필요한 기간에 경감토록 배려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제한 채용시험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관련분야 예산(인건비)을 확보한 뒤 이달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적으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적응도 및 업무활용도 등의 성과를 분석해 상시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임계약직으로 채용, 탈북자 지원업무 등을 전담

토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제한 채용은 연말 사회복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시 저소득층만을 추가로 구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채용시험은 2009년부터 실시돼 총 2명이 최종 합격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회확대의 측면에서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게 됐다. 세부 시험일정과 규모는 사회복지직 총원계획(지침)이 시달되는 12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시험의 시행결과를 최종 분석해 ‘사회적약자 공직채용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공직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생활자금 이자율 1%로 인하

도 관련 조례입법예고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의 이자가 대폭 낮아지고 융자대상도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의 연이율을 2.5%에서 1%로 낮추고, 융자대상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무담보·무보증 융자를 1000만원 이하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2000만원 이내의 사업자금과 3000만원 이내의 주택·전세자금을, 자활공동체와 근로사업단에는 1억원 이내의 점포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저소득층의 소자본 창업과 보급자리 마련,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중·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세 이상 노인 부양 ‘도가 책임’

내년부터 종합돌봄서비스 제공...월 27시간 이상 혜택

‘장수의 섬’ 제주가 100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부양을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추진할 노인종합돌봄서비스는 만 100세가 되는 장수노인 가운데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식사, 세탁, 청소, 외출동행 등 월 27시간 이상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부양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100세 이상 어르신은 97명이며, 이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54명을 제외한 43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관계없이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해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냄으로써 장수의 섬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죽원·창암재활원,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선정

제주시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송죽원(원장 김금자)과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을 체험홈 운영시설로 선정했다.

제주시는 선정된 체험홈 2곳에 각 1억원씩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체험홈 1 곳에는 4~5명

이 거주하게 되며, 36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해 이용할 수 있다.

체험홈 이용 장애인 가운데 기간이 경과되면 지역사회로 독립할 수 있으며, 소견에 따라 생활시설로 복귀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제주장애인요양원과 제주애덕의 집이 선정됐었다.



자활참여자 화합의장 제주자활한미당 개최

‘2011 제주지역 자활한미당’이 9월 23일 서귀포시 88체육관에서 제주지역 자활센터협회(회장 고은택) 주관으로 열렸다.<사진>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4개 지역자활센터(제주수눔음, 제주이여도, 서귀포일터나눔, 서귀포오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과 제주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행사로 자활사업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리안마로 초청공연(신명을 전하는 유랑 공대), 참여주민 자활한미당 축제를 비롯해 자활사업 홍보부스운영(지역자활센터 사업 홍보, 목공예 체험, 종고의류 및 농산물 판매 등), 도내 기업체 일자리정보 제공과 적성검사, 자활활동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자활한미당 행사 수상자 명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송영주(제주수눔음 지역자활센터) △박성호(제주이여도지역자활센터) △강신숙(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양청자(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자활글쓰기 공모 △최우수상=오숙미(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우수상=김경아(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 송은심(제주이여도 지역자활센터) 황인실(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장려상=윤신우(제주이여도지역자활센터) 양재희(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송창미(〃) 문규봉(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제주보호관찰소-공동모금회 업무협약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배종상)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와 9월 1일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지원 활성화를 위해 장학금, 생계비 지원과 함께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사업을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배종상 소장은 “이번 업무협

약을 통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돼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순두 회장은 “관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보호관찰소와 협력을 통해 공동모금사업을 전개하고, 제주도 전체가 행복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8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830,000	830,00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0
자원봉사후원	490,000	490,000
복지사업후원	1,125,000	1,869,500
푸드마켓후원	5,795,000	2,697,2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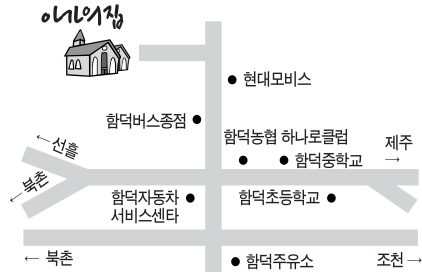
(47)아가의집



엄마 품처럼 따뜻한 보금자리

제주 최초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맞춤형 교육으로 자립심 키워”

‘선(善)하게 선(善)하게 다시 선(善)하게’
사회복지법인 해정원 ‘아가의집’의 원훈이다.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이 문을 연 것은 1988년 5월, 재일동포 3세인 김희숙씨가 젊은 시절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할머니 고향인 제주에 들어와 설립한 도내 최초의 지적장애인생활시설이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자리잡은 아가의 집은 지적장애인의 일상적인 보호기능은 물론 특수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곳에 머물고 있는 생활인은 모두 40명(남 21명, 여 19명). 장애 등급도, 유형도 다양한 이들은 ‘엄마의 품’ 처럼 따뜻한 이 곳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재활의지를 다지고 자립심을 키우고 있다. 1급 장애인이 30명이고, 나머지 10명은 2~3등급 장애인이다.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뇌병변, 간질,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들도 다수다.

아가의집은 생활인들의 연령과 장애등급·유형 등을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언어, 인지, 미술치료에서부터 직업훈련, 정보화교육 등 재활서비스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스스로 용돈을 관리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용돈 및 금전관리교육도 이뤄진다. 상담활동과 사례관리도 연중 실시된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악기도 배우고 난타연습도 한다. 생활인들은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공연을 통해 마음껏 뽐낸다.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한바탕 어우러지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동아리활동은 생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통로다. 자전거, 배드민턴, 요리, 오토, 율레, 자유투어 등 7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배우고 올바른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성교육도 실시된다.

아가의집은 1990년부터 특수학교인 영지학교 부설 학급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 초등부는 이 부설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중·고등부는 제주영송학교를 다닌다. 종종 생활인은 재택 수업을 받는다. 직업 전 훈련과 직업

적응훈련은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이뤄진다.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함덕리 노인 100여명을 초청해 어르신과 함께 하는 한바탕 행사를 열고, 분기별로 마을 청소나 나서는 등 정화활동도 펼친다.

현재 아가의 집 후원자는 200여명. 하지만 예년만큼 운영의 손길이 많은 것은 아니다. 생활용품 기부도 많이 줄었다.

고용성 원장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나눔과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의=783-9000.

병·의원 어디서든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이달부터 12세 이하 아동대상

이달부터 도내 12세 이하 어린이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2세 이하 아동이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할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종비가 지원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CG(결핵), B형간염, DTaP(디피티·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볼거리·풍진), 수두, 일본뇌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등 8종

이다. 보건소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준다.

제주도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집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돼 접종률 향상에 따른 전염병 예방은 물론 부모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 67곳과 보건기관 17곳(보건소 6, 보건지소 11곳) 등 모두 84곳이다.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chc.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 기본조례 입법예고

제주도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기본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뒤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고, 제주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다. 협의체에

는 실무협의체를 두고, 실무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단위의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스스로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에 복지위원으로 구성된 읍·면·동 복지위원회 협의체를 두도록 했다.

이 외에 지역별 균형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기본조례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해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문간호등 추가지원

제주시는 오는 5일부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현재 제공되는 활동보조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이 추가된다.

또 현재 1~4등급별로 35만원~86만원까지 지원되는 기본급여 외에 출산 등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따라 8만3000원~66만4000원까지 추가 급여가 지원된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신규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길 희망하는 장애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본인의 통장 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방문조사, 수급자격 심의 등을 거쳐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지원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9만12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은 1570명이며, 이 가운데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315명이다.

“행복한 배고픔” 제주여상 기아체험

동남아식수펌프 지원 위해 703만원 모금

제3세계 어린이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정복언)는 9월 17일 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인재양성 2011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기아체험 열린캠프’를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민일보, 제주MBC, 월드비전 제주지부 등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글로벌 인재양성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학교 단위로는 처음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참가자들이 5개 난민촌(투발루, 짐바브웨,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네갈)에 배정돼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 생활을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흙더미에 숨겨진 구슬을

찾으며 케냐의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실제 겪고 있는 아동노동의 실태를 경험하고, 심판의 편파판정과 특정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 등 피구게임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내 딸의 남자친구’, 아프리카의 부족한 물 문제를 다룬 ‘식수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실상을 체험했다.

특히 학생들은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기아체험 1개월 전부터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아체험의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시켜 후원



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스폰서북 모금활동을 벌였다. 모금활동에는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거금 703만 2000원이 모였고, ‘제주여상’ 이름으로 동남아시아 식수펌프 지원을 위해 월드비전 제주지부에 기부했다.

3학년 임성희 학생은 “재학생 모두가 지구촌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며 “동남아시아에 우리 학



교 이름으로 설치될 식수 펌프가 그 곳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국함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복언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적 성장을 볼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도 보건복지여성국

세계7대경관투표기탁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오정숙)은 전 직원이 세계7

대자연경관 선정을 바라는 마음을 모은 685만5000원(기부 투표수 4만1545건)을 기탁했다.



‘음악으로 쇼를 하자’ 진행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지난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청소년의 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음악치료 Project -음악으로 Show를 하자!’를 매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과 감정조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청소년에게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감정조절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시설장애청소년 5명과 재가장애청소년 4명 등 총 9명이 음악치료사와 보조교사의 지도하에 전문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1:1 개인맞춤형 음악치료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요가와 에어로빅으로 여가생활 만끽해요”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2011년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전문화된 여가생활을 하고 싶어요’를 운영, 요가와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송죽원은 9월 7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12회 사회복지의날 기념 한마음축제에서 신나는 에어로빅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소/식/마/당

추석절 사랑나눔 활동 전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추석을 맞아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어려운 아동들과 이웃 100여세대에 ‘추석절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눔활동을 통해 어려운 아동들과 이웃들을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해 개인후원자들의 정성을 모은 쌀과 선물세트, 양말 등(400만원 상당)의 선물과 감사편지를 전달했다.

박경선 명창초청 ‘국악한마당 공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추석을 앞둔 9월 9일 시설이용자 및 보호자 등이 모인 가운데 명창 박경선 소리마당 단원을 초청해 ‘국악한마당 위문공연’을 가졌다.

박경선 명창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금요일 주 1회 어울림터 원생들을 대상으로 민요교습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아동보호기관-외국교 업무협약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9월 20일 외국초등학교(교장 임정렬)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부적응 아동의 상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응급대처와 효율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해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실천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한형범)는 9월 8일 늘봄가든에서 10개 직능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201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직능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연회비 납부 협조 등을 요청했다.

아가의집, 한가위체험한마당 펼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추석을 맞아 9월 14일 원내 다목적실 등에서 한가위체험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생활인파 교사들은 함께 단합해서 송편만들기, 투호던지기, 활쏘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고,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며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월드비전 위기가정 지원금 전달식



월드비전 제주지부 제주가정개발센터(지부장 김관호)는 9월 19일 월드비전 사무실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아동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월드비전 위기가정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5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 총 241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혜정원 근로장애인 전국 1위 쾌거

형남춘씨 도예공모전 대상
김미란씨 태권도 품새 금메달



△형남춘씨가 출품해 대상을 수상한 '돌하르방의 꿈' (왼쪽). 형씨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고 있다. (아래)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 근로장애인들이 전국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형남춘(53·지체장애 1급)씨는 한국재활재단이 주최한 제6회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에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것을 염원한 '돌하르방의 꿈'을 출품,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형씨의 작품에 대해 '군더더기 없는 완성도를 보인 세련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1994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형씨는 '휠체어에 의존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3년전부터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도예작업을 해오고 있다.

형씨는 "막상 상을 받고 보니 사고 이후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면서 "지금까지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든든한 가정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또 현수막사업부에서 재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란(27·지적장애 2급)씨는 9월 15일 열린 2011년 추계전국장애인태권도대회에서 여자지적장애인 품새부문 금메달을 획득했다.

시설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태권도프로그램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태권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김씨는 지난 4월 열린 제45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서 품새부문 동상을 수상했고, 7월에 열린 생활체육태권도 동호인 대회에서는 단체전과 개인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기에 많이 나가서 좋은 상을 받고 싶어요. 앞으로 태권도연습을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계전국장애인태권도대회 여자지적장애인 품새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김미란씨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회복지관 협회 - 제주범도민위 업무협약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배윤규)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선정범도민추진위원회(위원장 부만근)는 9월 2일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쾌거 달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사회복지관 가족 1만여명이 하나가 되어 제주7대자연경관 선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 참가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근)는 9월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린 제27회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 및 부모연수에 장애아 가족 40여명과 함께 참여했다.

이 행사는 전국장애인 부모와의 교류 및 장애 자녀들과 함께 평소 접해보지 못한 용인에 버랜드와 민속촌 등을 체험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의 양육, 재활, 자립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미술치료집단상담 실시

제주가족사랑상담소(소장 김명수)는 미술치료와 자기성장에 관심 있는 학생과 일반인, 교육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5~6일 미술치료집단상담을 가족사랑상담소 교육실에서 갖는다.

류정자 박사(부산미술치료연구소장)가 강사로 나서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표현과 승화과정을 통해 자아성장을 촉진시키는 과정인 미술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문의=726-3277.

제주장애인가간학교 6회 졸업식



제주장애인가간학교(교장 오옥만)는 9월 16일 제6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생은 고입 1명(황우성), 고졸 2명(김상홍, 이슬기) 등 총 3명. 졸업식은 표창패 수여, 졸업장 수여,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 졸업식 노래 제창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졸업생 가족을 비롯해 제주도의원, 장애인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

제주장애인가간학교는 2004년 설립 이후 총 3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장애인평생교육 등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수상자명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김상홍 △고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장 표창 △황우성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표창 △이슬기 ▲제주장애인가간학교장 표창 △김상홍 △황우성

노인학대예방은 노인안전의 시작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9월 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4회 범도민안전체험한마당'에서 '노인학대예방 홍보체험관'을 운영,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노인학대예방 홍보 체험관'은 노인학대 관련 사진전시, 노인학대상담전화 인식조사, 효도서약서 작성, 노인체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효도서약서 작성'은 가족 단위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직접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서약서를 작성, 효(孝)에 대



해 가족이 함께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인체험은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 공경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한편 김선희 관장은 이날 행사에서 제주도민의 노인학대 인식 증진 및 학대 조기근절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청무한사랑봉사회, 창암재활원서봉사활동



제주시청무한사랑봉사회(회장 김연옥) 회원 33명은 9월 18일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을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고, 청소 및 주변환경 정비활동을 전개했다.

facebook

Childfund Jeju

제주종합복지관 SNS와 통(通)하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윤호)이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SNS를 통해 복지관 행사와 서비스 등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을 받는 등 SNS 이용자와의 소소하고 대화를 통해 '소통'을 통한 '공감'을 이루고 있다.

또 SNS를 통해 그 동안 교류하기 어려웠던 다른 지역 사회복지기관들과 소통하고 최근 사회복지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회복지현장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이 운영하고 있는 SNS 매체는 트위터(twitter.com/@childfund_jeju : 팔로워 591명), 페이스북(facebook.com/childfund_jeju : 친구 773명), 다음 블로그(blog.daum.net/childfund-jeju) 등 총 3개.

정성관 사회복지사는 "처음 페이스북을 만들기 전 사회적 이슈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SNS를 사회복지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 고민이 많았다"며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한 이후부터 홍보, 자원봉사조직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758 1377 FOOD MARKET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9월 식품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171kg ▲서문식품=두부 384모, 콩나물 20봉 ▲김치원=김치 50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ℓ 900개 ▲제주이여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60kg ▲아산재단=쌀 200kg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라면 105박스 ▲이든이네=멸치 3kg ▲꽃밭화장품=밀가루 300kg ▲약천사=쌀 110kg ▲전원요양원=쌀 20kg ▲일도2동주민센터=쌀 50kg ▲현민철=제주사랑상품권 50만원 ▲일도2동새마을부녀회=생필품 28개 ▲CMS후원자=205명 172만5000원

칼럼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허하라!



고 수 희
평안전문요양원 부원장

“소년이 늙어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은 늙어 늙은 소년이 되고, 소녀도 늙어 늙은 소녀가 된다(김영하, ‘빛의 제국’ 중에서)”

한국의 기대수명은 1971년생 남성의 경우 절반이 94세까지 살고, 같은 해 태어난 여성은 96세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육십 평생’ 운운하던 시대는 사라져 가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100세 시대’를 이야기한다. 100세 시대에 장수는 축복일까?

100세 시대 활기차고 당당한노년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8.7%에 그친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대수명이 짧은 시대에는 건강하게 장수

하는 것이 축복이었던 반면, 오늘날은 은퇴 후 살아갈 긴 세월이 부담되는 시대인 것이다. 장수의 가치는 건강이 허락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때 발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우리말로 풀어쓰면 활기찬 노화, 당당한 노년쯤 되지 않을까? 한때 안티 에이징(anti-aging)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가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 아무리 젊어도 노화를 막을 수는 없으니, 이왕 노화를 겪는다면 활기차게 나이 들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액티브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사회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증 질환 어르신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노인을 사회적 비용과 부담 부담을 가중시키는 존재로 전락시켰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어르신은 일부에 불과한데 말이다. 게다가 독거노인이라는 호칭이 주는 이미지는 어떠한가? 외롭고 힘없고 괴로운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처럼 느껴진다.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30년 전에 4.8%에 불과했던 1인가구가 5배나 증가하여 23.9%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미 핵가족을 넘어서 ‘원자가족’ 시대로 접어들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잠재적인 독거노인이 아닐까?

어르신도 중요한 사회구성원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을 지칭할 때 늙음을 강조하는 노인(老人)이라는 호칭을 쓰는 반면 일본은 고령자(高齢者), 미국은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이라는 용어를 선호함으로써 호칭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 노인을 연장자로서, 인생선배로서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노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일도 쉬워진다. 사회적 합의를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최선을 다해 돌보며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고, 역동성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미지 개선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점차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노인들이 당당하게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예외없이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다.

시론

학대피해노인에게 삶의 의미를



고 보 선

인간은 누구나 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한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가치와 표준, 그리고 목표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연령, 성, 학력, 계층, 지역, 인종 및 문화적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시대 또는 사회의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표준에 의해 차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젊은 세대에 의하여 노인이 차별받는 연령차별주의, 남성에 의하여 여성이 차별받는 성차별주의, 저학력자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학력차별주의, 특정 계층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계층차별주의 등은 철저한 자본주의의 맥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환경적 맥락은 가정이나 시설, 사회에서 학대에 노출된 노인들을 연령차별주의적 사회분위기와 함께 사회의 주된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제외시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가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학대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체계적 통합보호시스템 구축시급

그 하나는 가족구성원들이 개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모습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된 가치는 젊은 세대의 부양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인부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정 속에서 부양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학대가 가정 속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효를 중요한 삶의 덕목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노인들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학대는 곧 자신의 허물이며 부덕함으로 생각하여 문제 상황을 자발적으로 감추고자 하며 가해자의 학대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은 만성질환이나 노화로 인하여 가족구성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자신이 살아온 친숙한 환경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함께 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들이 끌어내는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과 더불어 가해자의 학대에 대한 대처행동이나 대안을 노인 스스로 찾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일반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중요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통합보호시스템은 피해자인 노인과 가해자 및 가족구성원을 함께 돕는데 기본가치를 두고, 노인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교육 및 상담, 치료, 자활프로그램, 법 지원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개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노인과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의 협력 하에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고

관심으로 맺은 인연, 사랑으로 맺은 가족



부 현 지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가정위탁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가정위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나에게 생소한 의미였던 ‘가정위탁’이 특별한 의미로 기억될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7월말부터 3주 동안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로 사회복지실습을 나갔을 때의 일들 때문이다. 평소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나에게 실습에서의 짧은 경험은 아동복지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3주 동안의 실습기간동안 위탁가정을 방문하는 활동을 주로 하

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위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위탁아동의 학교와 가정생활을 둘러보고, 위탁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습을 하는 동안 만난 위탁아동들의 밝고 씩씩한 모습에 조금은 놀랐다. 솔직히 실습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친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과연 위탁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편견의 눈으로 그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부모라는 버림목 아래서 행복을 함께 해야 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려 헤매고 있을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처음 보는 나에게도 스스럽없이 먼저 다가와 인사해주고 “언니, 언니”하며 잘 따르기까지 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밝아지기까지는 위탁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재 일반위탁을 하고 계신 위탁모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위탁아동이

절대 빼놓아질 수 없는 이유를 위탁가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짧은 이야기지만 위탁모의 표정과 말투에서 위탁아동이 가정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었고 누가 봐도 사이좋은 모녀관계라고 할 정도라고 하니 가정위탁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부모의 이혼과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해마다 친가정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위탁양육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을 찾기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보내는 조그만 관심은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해줄 수 있으며 그것이 커다란 사랑이 되어 그들과 가족이라는 의미로 함께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한걸음만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면 위탁아동들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수호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1 사회복지세미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절대액 상향조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양광호)는 9월 30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2011 사회복지세미나'를 개최했다.

본지는 2010년 보건복지부 용역과제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의 발제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2011 사회복지세미나'가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열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발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연구원



이민경 연구원은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양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생활시설 등 6개 유형 5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현황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조사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근무동기를 약화시키고,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숙련된 종사자들이 이직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보수수준 향상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자체에서 채용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6호봉 이상 고호봉자의 경우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직책수당 등),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차이로 인해 시설유형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시설유형과 지역별 차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인건비 가이드라

인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시설유형별 지침에 따라 직위·직급체계를 갖고 있으나 동일한 시설유형에 있어서도 직위·직급 체계에 차이가 있는 시설이 있으므로 먼저 이러한 직위·직급체계를 통일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약 30% 정도이며 각 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강원, 전남, 대전, 경북 순이며, 서울, 경기, 경남, 인천은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보다 준수하고 있다.

이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원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조사결과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시설유형별 보수수준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시설로 성매매피해시설,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을 꼽았다. “이들 시설은 보수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력 반영 등 보수산정기준이 비체계적이어서 보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상향조정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 개선이라는 2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상향조정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및 보수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공무원과의 급여격차 최소화과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은 직급과 호봉이 낮은 종사자보다 직급과 호봉이 높은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며, 그 결과 호봉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장기간 근로할 의욕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직동기가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현재 보수는 다른 서비스분야 직종과 비교해서 수준이 모든 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 대비 62.7%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실정인 것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절대액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

수는 권장사항이어서 준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

의 개선을 통한 지방이양사업의 중앙환원이나 또는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 신설 등 교부금 관련 규정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충분한 보조가 이뤄지지 않

평균 임금 낮아 근무동기 약하고 이직 고려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신설 등 규정 개선돼야

비 예산’ 항목을 마련해 중앙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의 개선 ▲급여 표준화를 위한 급여조정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개선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보수체계 개선에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지방이양사업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제도

는 상황에서 보수체계만 상향조정된다면, 운영비와 사업비 압박요인이 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제주장애인요양원 정석왕 원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매번 그 순간의 문제제기에만 그쳐왔다”면서 “논의 이후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누는 기쁨, 행복한 동행”

2011 서귀포시
**행복
 나눔의날**

2011.10.22(토)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



공연마당

- ♥ 개막축하공연 · 개막식/경품추첨
10:00~10:40
- ♥ 난타/방송댄스/기타연주/노래공연
10:40~11:30
- ♥ 청소년 페스티벌
16:00~16:40
- ♥ 민요공연/경품추첨
17:00~17:30

복지테마관

- ♥ 사회복지서비스 홍보 · 전시 · 판매
- ♥ 복지체험/건강안전체험/기타체험
10:00~18:00

행복나눔 장터

- ♥ 물건 기부도 하고 구입도 하는 행복나눔 장터
10:00~18:00
- ♥ 따뜻한 국수 한그릇 행복국수 나눔
12:00~14:00

주 최_ 서귀포시
 주 관_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회
 후 원_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